

불자 세상보기



김정자 칼럼니스트

지난해 10대 뉴스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오는 해의 변화를 조금씩이나마 예감할 수 있다. 특히 2010년 세계 10대 뉴스 가운데 '위키리크스'와 '스마트 폰, 태블릿PC 혁명과 소셜 네트워크의 부상'은 변화에 대한 예감을 예사롭지 않게 한다.

'Wikileaks'. 이 폭로 사이트는 '기밀누설'이라는 제호 자체부터 도전적이고 선정적이다. 스웨덴 여성 2명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영국에서 체포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지금 영국에 머물면서 스웨덴으로의 송환 여부를 영국 법정에서 심사 받고 있는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 주로 미국 정부 내 기밀을 인터넷을 통

새 인문학·질서 부여의 원년으로

해 폭로해,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해진 호주 출신의 이 남자.

그런 유명세에 힘입어 당장 자신의 자서전 출간에 거의 20억 원에 이르는 계약을 맺기도 했다. 그가 자서전으로 거액을 챙길 수 있는 것은 유명세 영향도 있지만 남달랐던 그의 성장배경 역시 호기심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어머니와 함께 폭력적인 의붓아버지를 피해 다니느라 어려서부터 들리지 않고 피해 다니는 법에 익숙해졌고 한 곳에 진득하게 머물 수 없었던 성장기. 그런 환경이 만들어 낸 복잡한 기질 등이 그것이다.

'위키리크스는 세계의 투명성 창조를 위한 존재'라는 구호에 환호하는 팬들도 많고, 이 새로운 형태의 언론(?)에 후원금도 몰린다. 유사 사이트들도 속속 등장하는 모양이다.

'투명성'. 그렇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도 그 투명성은 여러 방면에서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책임감 없이 사회적 혼란만 가져오게 하는 무책임한 폭로가 과연 인류 사회가 요구하는 그 투명성에 해당하는가라는 의문은 남는다.

과학이 만들어 가는 두려운 세계. 인터넷이 열어 준 개방과도 같은 새로운 세계. 그 세계가 만들어 내고 있는 새로운 문제점들의 정점에 나타난 상징적 존재가 바로 위키리크스일 것이며 그 인터넷은 앞으로 어산지 같은 유명인물을 계속 만들어 낼 것이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언론의 자유'는 보다 폭 넓게, 보다 다양한 형태로 주장되고 있다. 위키리크스의 폭로도 언론의 자유라는 방패를 내세운다.

이 새로운 형태의 '언론' 들은 때로는 유언비어나 허위 글 등을 더해 앞으로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고 아직 마땅한 대책이 없으니 혼란의 시기는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존의 저널리즘이 오늘 같이 '책임 있는 존재'로 성숙되기까지의 진화 기간을 생각해 봐도 그렇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혁명, 소셜 네트워크의 부상 등이 이들의 문제점을 더 키워 갈 것인지 아니면 인간 중심의 이기(利己)가 될 것인지도 역시 의문이다.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의 부상은 '분

권화 하던 사회를 다시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들고, 수많은 지구인을 하나로 연결해 인간관계의 기본 틀을 재정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터넷은 '인간성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기도 했다.

다행스럽게도 전문가들은 스마트 시대의 변화 주인공은 기술 아닌 사람으로 본다. 스마트 시대의 변화는 기술적이 아닌 인식의 변화, 방향성의 변화이며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하고, 진정 좋은 기술 역시 '사람'을 위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눈을 뜨면서 스마트의 새 시대는 열리고 있다는 것이다.

인문학에 대한 새로운 눈 뜬 역시 인터넷 세계가 만들어 온 혼란에 대한 대응이 아닐까.

정제되지 않은 인간성이 만들어 가는 이 혼란에 새로운 질서를 가져 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윤리학 철학 종교의 새로운 역할도 있어야 한다.

2011년은 2010년대의 원년이다. 새로운 인문학의 원년, 혼란에 질서를 부여하는 원년이기도 기대한다.

사설

신묘년 새해를 열며

불기 2555년(2011년) 신묘년 새해가 밝았다.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인데도 우리는 새해 첫날 해 떠오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학명 선사(1867~1929)는 시에서 "묵은해니 새해니 분별하지 말라"고 했다. "우리가 어리석어 꿈속에 사는 탓에 겨울 가고 봄이 온다고 해가 바뀌어 보이는 것"이라고도 했다.

무엇이든 시비를 나누고 분별하고 망상하여 직성이 풀리는 중생인 탓이다. 그런 까닭에 탐·진·치 삼독은 치성하고 우리는 더더욱 무명의 늪에 빠져든다.

올해는 토끼해이다. 불교에서 토끼는 상서로운 짐승으로 통한다. 부처님이 과거세에 토끼로 태어나 숲속에서 살았을 때 일이다. 어느 날, 굶주린 바라문이 숲 속을 찾아와 탁발했다. 수달은 어찌 잡아 놔던 물고기를, 월승이는 미리 따 놓은 과일을 공양했다. 하지만 토끼는 바라문의 발우에 무언가를 담으려다 위해 하루 종일 숲 속을 헤맸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발우에 건넌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토끼는 들레에 마른 나무토막을 굶어 모은 뒤 불을 질렀다. 그 위에 몸을 던져 스스로를 태워 그 살코기를 바라문에게 공양 올리고자 함이었다. 하지만 뜨거운 불구멍이 속에서도 토끼는 타지 않았다. 털 한오라기조차도. 바라문은 제석천의 화신으로 토끼를 시험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토끼의 특별한 마음을 안 제석천은 뜨거운 불을 차가운 불로 바꿔 타지 않게 했다. 그리고는 소신공양한 공덕을 기리고자 토끼를 달에 보내 살게 했다.

이런 까닭에 불교에서 토끼는 불사(不死)의 상징이다. (대지도론)에서는

공(空)을 '토끼뿔'로 표현하기도 했다. 토끼는 귀가 크지만 하지 뿔은 없기 때문이다.

토끼해에는 많은 경사가 있었다. 1300여 년 만에 고국을 찾아 4월 3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되는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이 해 초 스님의 손에 의해 쓰여진 것도 성덕왕 26년(727)인 토끼해요, 경주 불국사가 지어진 것도 경덕왕 10년(751)인 토끼해였다.

그 뿐인가. 팔만대장경이 조성된 1087년도, 석가의 일대기를 찬술한 <석보상절(釋譜詳節)>, 부처님의 교화 자취를 좇아 칭송한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도 토끼해에 편찬됐다.

지난 일은 돌이킬 수 없다.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미리 할 이유도 없다. '바로 지금' 우리가 머무는 그 순간·지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과거의 고난은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요, 미래는 행복할 것이다.

매월 장을 넘기던 달력이 이제 새 달력으로 바뀌었다. 저마다 새 마음, 새 각오로 무엇인가 이뤄보겠다는 이때이다. 우리 모두가 탐·진·치 삼독을 떨치고 공을 실천하는 삶을 살자. 파사현정의 신념을 불사의 각오로 다지는 한 해를 살자. 바라문을 위해 소신공양했던 토끼의 간절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한 해를 살자.

지극한 정성으로 대장경을 조성해 하늘에 닿았던 그 감동이 불자 여러분의 가정마다 재현되길, 그 감동이 모두의 고난을 덮고 기쁨을 배가시키길,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길 바란다.

현대불교도 불교계 최고의 전문지로서 한마음으로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부단한 정진을 이어갈 것을 독자 제현께 약속드립니다.

사부대중 칼럼



신공 스님 청원 구룡사주지

한해 끝자락에 들러온 예산안 파동과 연평도 폭격소식은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다.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모르는 몰지각한 정치인들로 인해 불자들의 마음도 멍이 들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때로는 기쁜 소식에 웃기도 했었고 마음 아픈 소식을 접할 때는 마음 한 구석에 그늘이 젖은 한 해였다.

지금 산사는 혼탁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혼돈과 혼란을 정화하기 위해 수행의 향기로 가득하다. 선당(禪堂)에서 울리는 죽비소리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망상을 깨뜨리는 소리로 들리며, 법당에서 행해지는 예불은 진정한 참 나를 찾기 위한 수행의 모습으로 비춰진다. 이렇듯 한국불교는 수행과 전통문화의 정신을 계승하며 면면히 전하고 있다.

불가(佛家)에서는 자신의 마음공부 지

어가는 것을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지어 수확하는 것에 비유한다. 그만큼 불교에서 수행은 깨달음을 이루는 중요한 자신의 살림살이다.

옛 선사의 말씀에도 "오늘도 그저 이렇게 헛되이 보내니 내일 공부가 어떠할지 알 수 없구나"라고 말한 것처럼 자신의 하루 공부를 점검하면서 공부가 잘 되지 못한 것을 걱정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치인이든 종교인, 기업인이든 자신의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하는 이는 자신의 인격을 깎을 수 없는 것이다. 항상 자신의 공부가 어디가 부족함을 늘 점검해야 한다.

하루에 한 번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보자.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인가? 어떻게 닦는 것이 참 수행의 길인지? 우리는 부처님께서 묵묵히 걸어온 수행의 길을 알고 있다. 부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고僧의 길을 걸어왔기에 무상정각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끊임없는 자기 수행의 길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자신을 닦고 자신을 발견하는 일은 결코 쉬운 길

자신을 챙기는 한 해

이 아니다. 수행은 부처님의 행위를 본받는 일이며, 부처님의 삶을 닦아가는 일이다.

오늘날 같이 정법보다 마군의 세력이 성행하는 시대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배우고 실천하는 일이다. 처음 발심해서 꾸준히 정진하는 그 자체가 어렵고 힘이 드는 일이지만,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고 피는 매화의 향기처럼 빼를 깎는 정진이 필요하다.

진정한 참 수행이란 "수행한다고 하거나 안 한다고 하거나 하는 것은 모두 헛된 말일 뿐입니다. 모든 중생들이 여래의 지혜와 덕성을 갖추고 있으나, 다만 망상과 집착 때문에 마음의 자성을 증득하지 못하고 있어 망상만 여의면 곧 청정한 지혜가 나타난다"라고 했다.

선가(禪家)에서는 수행의 본질을 마음 찾는 공부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 한다. 그래서 견성성불(見性成佛)이란 말도 있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마음 자성을 보는 것이 그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라는 말이다. 우리들은 이 구절을 접할 때 마음이 어디에 있기에 찾으라는 것인가 하고 생각

해 보신 적이 있는가? 마음이 어디 따로 숨은 것도 아닌데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우리의 본래마음은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본래 있는 줄 바로 자각(自覺)하는 것이다. 단지 망상과 집착의 구름이 내 마음을 덮고 있을 뿐이다. 망상의 구름을 걷어 버리고 나면 본래의 마음자리가 나타난다는 뜻이다.

마조 스님은 수행이란 "닭을 짓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는 것이[無修無證] 참 수행"이라고 했다. 만약에 닦아야 할 것이 있고 증득할 것이 있다면 진정한 수행도 아니요 증득도 아닌 것이다. 우리들의 한 생각 한 마음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분별심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이며 진정한 행복의 길을 여는 자리가 된다.

"금생에 이 한 몸 제도하지 못하면 어찌 다시 다음 생을 기다려 제도될 수 있겠는가"라는 구절을 마음에 새기자. 다가오는 신묘년 한 해 풍성한 자신의 살림살이 잘 챙기고, 늘 언제나 부처님의 진리 속에서 행복할 삶을 만들어 가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www.hyunbul.com
www.buddhanews.com
www.buddhapia.com
www.hyunbulshop.com
대구지사: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충청지사: (043)732-5560
전북지사: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영주지사: (054)634-3429
부산지사: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공리규정 및 그 실현 요강을 준수한다

올해는 '불기 2555년'입니다. 불기를 사용합시다. 종단협·불기협 공동캠페인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52기 최면 전생요법·빙의치유법 강좌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까지(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가능
전생요법 :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몸은 왜 이렇게 아픈것일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치유 : 내안에 누가 있는것 같아요... 누군가 내 머리속에서 뭐라 이야기하는것 같아요. 내가 나를 조종 할 수 없어요. 등 환청, 환각에 시달리거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상 행동, 괴벽, 정서불안, 악몽, 가위눌림 등의 증상으로 고통 받는 경우
사주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 다니니 황사 악사요...
미국 스탠튼대학교(Stanton University) 부설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대성동 248-301(청운빌딩2층)
042) 255-0734~5
인내자료 전생요법, 빙의 치유 및 명리학 강의내용 등 자료 비디오 테이프를 보내드립니다.